

재대신 화관을

- 권혜영 선교사 / 2003. 4. 4 -

안녕하세요,

저는 7년간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혜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여리고 사역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 매매 여성들을 전도와 재활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살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르완다 전쟁 후 콩고에서 기아 대책 기구를 통해 10월부터 두 달 간 의료 긴급 구호에 참여한 후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고 96년 온두라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3년간 간호사역을 하고 허리케인으로 인한 긴급 구호를 하던 중 미국 여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여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거리 전도를 하며 새 삶을 살기 원하는 여인들에게 재봉을 가르치고 제자양 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미혼모인 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사역이 시작되고 다양한 달란트를 살리기 위해 미용기술 또한 가르칠 단기, 장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선배 선교사로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몇 마디 있습니다.

성기려 간다고 하면서도 첫 일년간 절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기기 보다 성김을 받고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도하지 않고 제자양육하지 않은 사람이 현지에 가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두라스의 여리고 사역 여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리더가 되어 아직도 거리에서 방황하는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양육 받는 아이들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